

분책의 상·중·하에 대한 단상

임동석

건국대 교수·중문과

무인(戊寅)년 호랑이해의 새날이 밝았다. 우선 금년 한해는 온갖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우리의 기상인 호랑이처럼 다시 한번 도약의 기쁨이 마련되고, 우리 출판계도 경제난으로 시련 가습을 따듯이 하는 책들이 쏟아져 그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한다.

새해 벽두부터 좀 엉뚱한 발상이라는 하나 평소 느껴 오던 작은 문제 하나를 거론해 보고 싶다. 가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두세권, 혹은 그 이상으로 분책한 총서류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책이 함께 있으면 다행이지만 서로 흩어져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몇 권인지 얼른 알아보기가 어렵다. 때로는 판권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더러는 총 몇 권인지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또는 상(上), 혹은 하(下)권만 있어 중(中)권의 유무를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이를 표시하였을까? 사실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우선 책표지에 표기된 글자만 보고도 전체가 몇 권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즉 단권은 '단(單)' 자를, 2책인 경우는 '건(乾)·곤(坤)', 3책은 '천(天)·지(地)·인(人)', 4책은 '원(元)·형(亨)·리(利)·정(貞)', 5책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6책은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10책은 '십간(十干)', 12책은 '십이지(十二支)'의 한 글자씩을 표지마다 적어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표지에 쓰인 글자를 보면 모두 몇 책의 총서이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몇권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1940년경 안동에서 《동국정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2권의 낙질이었고, 그 표지에 '예(禮)'와 '수(數)'라는 표시가 있어 곧바로 이는 모두 6책이며 낙질은 그중 제1책과 제6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뒤 1972년 강릉에서 6책 전질이 고스란히 발견되어 국보로서의 완형 모습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좋은 방법은 사라지고 주로 상·하 혹은 상·중·하, 또는 아라비아 숫자, 심지어 로마 숫자로 분책의 순서를 표시하고 있다. '상·하'나 '상·중·하'는 중(中)의 유무에 혼란을 주고, 아라비아 숫자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며, 로마 숫자는 눈에 낫설어 순서조차 맞추기 어렵다.

이에 나는 늘 다음과 같은 소박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왔다. 단일의 내용을 분량의 조절을 위해 분책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가 몇 권인지가 확정적이다. 이러한 경우 옛날처럼 고풍스럽게 한자의 날자를 이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생소하고 격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분수로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즉 총책수를 분모로 하고, 책의 순서는 분자로 정하여 이를 책표지나 측면에 표시하면 된다. 예로 총 3책의 경우 첫책은 1/3, 두번째 책은 2/3, 마지막 셋째 책은 3/3으로 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경하다면 지금의 관례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책표지만 보고도 전체 몇 권인지, 또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지금 우리의 천견(淺見)을 지혜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합리적인 관례는 만들기 나름이다. ❖

초점	2	뛰는 환율에 시련기 맞은 외서수입업체
출판계 소식	3	출협 신년 교례회 외
기획 취재	4	애들아, 우리 함께 책 읽으러 가자 겨울방학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활발
집중취재	5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불황에 맞선다 IMF시대, 서점·출판사들의 다양한 판촉행사 줄이어
불황기에 읽을만한 책들	6	고전 속에서 얻는 삶의 지혜
	7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삶의 고백
	8	산악을 오르며 인생의 역경을 이긴다
	9	역사와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번역소설
출판화제	10	한국경제 위기를 진단·처방하는 다양한 시각
만화	11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새 기획/기상대담	12	'조선의 발렌티노' 임화와의 대화 - 김윤식 근대문학사를 위한 노교수의 변명
나의 초거과 최근작	14	조선왕조 생명력 되살려온 역사의 길 - 한영우
주제가 있는 책읽기	16	신선한 내용으로 지역사랑 일구는 '향토지' 들 - 이해준
자료	16	문체부 출판정책자료집 29 간행물윤리위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이달의 출판광고	18	다양한 광고·홍보전략으로 승부한다
연재 에세이	20	독서, 그 보람찬 한유의 시간들 - 이광주
해외서점 탐방	22	독자에게 즐거움 주는 유럽의 '문화선동자'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3	《사이언티픽 아메리칸》《뉴 사이언티스트》 사이트 - 당연중
서평	24	동국대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 김경집 박우식 《중세철학의 유혹》 - 박종대 25 김중문 《일본의 문화와 종교정책》 - 최재철 기독교사회발전협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외 - 정수복 26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 과정》 - 이장희 이상우 《유치진 연구》 - 양승국
확대서평	27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전망 - 유팔무
종합서평	28	우리소설 연구에 깊이를 더한 성과들 - 소재영
이 책 그 사람	30	《선시감상사전》 펴낸 석지현스님 《그림으로 보는 한국근현대미술》 펴낸 강성원씨 31 《세익스피어도 바퀴벌레를 보고 웃었을거야》 펴낸 윤혜원씨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펴낸 이정률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②